

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레테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성경말씀: 뵤전2:9

총선 이후 지난 두 달 이상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뵤전2:9 강해,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올림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 지적 영적 도덕적 어두움, 빛 가운데서 걷는 사람이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총정리 하는 시간, < >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란 무엇인가?

praise: 칭찬하는 말, 칭찬받을 만한 성품, 칭찬거리, 일, 장점, 덕, 미덕

그리스말은 아레테 = 탁월함,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아레테(αρετη)란 그리스어로 좋음을 의미하는 아가토스(αγαθος)의 최상급인 아리스토스(αριστος)에서 도출되었다. 아레테란 최대한도의 능력 혹은 최상의 행위로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아레테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위치에 이른다는 것이며, 삶에 있어서 아레테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모든 종류의 행위에 있어서 최상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아레테란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이며, 운동선수의 아레테란 최선을 다해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해서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인, 음악가의 아레테는 정치를 잘하는 것, 경제를 잘 하는 것, 음악을 잘하는 것 이렇게 하면 칭찬의 대상이 됨, 덕스러운 존재가 됨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 개념에 대해 고민하였고 많은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논함

그리스, 100여 개의 폴리스(도시 국가), 폴리스는 5000명의 시민, 군사인 수가 많지 않음
당면 문제: 1. 어떻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것인가?

2.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이룰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 사람들의 아레테는 개인이 행복을 누리면서 국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 정신이 필요함, 이것이 아레테

그리스 교육의 목표: 아레테에 초점이 맞추어짐: 개인의 행복 추구+공동체의 유익

이것은 로마에도 이어져 내려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1:1) 소아시아 지역의 5개 교회, 로마 문명권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아레테 개념 도입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거리 즉 하나님의 아레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는 것: 하나님의 칭찬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아레테(덕)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을 통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빛나게 하는 요소: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권능, 공의 등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는 인류에게 행복을 준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지혜, 선하심, 권능, 공의 등)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들

뵤전2:9는 사43:21의 사상 계승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나에 대한 찬양, 찬양거리)을 전하리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존재 목적, 영원토록 하나님의 탁월하심, 덕 찬양

그러므로 신약 시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와 같다. 주님의 탁월하심, 덕 찬양
신구약 성경 공통: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권능, 공의 등을 찬양해야 한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다.

신자의 삶: 존재의 울림, 하나님의 덕들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
전하다(show forth), '밖으로 상세히 알리다'의 의미

그러면 무엇을 알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 1차적으로 설교를 통해: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덕들이 선포되어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이것을 통한 회중들의 자기 존재/위치 확인,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식 이해, 누가 교회를 방문해도 오직 하나님의 덕들이 선포됨,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
- 설교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의 책무, 존재의 울림으로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덕들을 선포하는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이런 일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 그런데 공동체는 개인들의 모임

성도들은 사는 데가 다 다르다. 그래도 영적으로 다 연대를 이루고 있다.

시골에 사는 농부가 이웃에게 존재의 울림을 전하면 이것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며 교회가

공동체로 한 일이 된다. 서울에 사는 한 분이 존재의 울림을 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존재의 울림을 내도록 가르쳐야 하고 책무를 주어야 한다.

존재의 울림: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힘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윤리적 삶

세상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없으면 “너나 잘하세요?” 무시

교회의 존재론적인 선포에는 세 종류의 전투가 따라온다.

- 사상적 전투: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를 위해 지성의 연마가 필요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고 변증해야 한다.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훌륭한 신학을 가진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는 학자들 지원하고 양성해야 한다.
올바른 신학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다.
이전 세대 선조들의 지식을 후대로 전달해야 한다. 좋은 책들, 미디어 자료들
성경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 윤리적 전투(요3:18-21): 세상은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게 만든다.
낙태(생명 문제), 동성애(남여 성 문제), 차별금지법
이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빛과 어둠은 사귄 수 없다(고후6:14).
- 영적 전투(엡6:12)
이단들과의 전투, 세상의 유혹과 오락거리
문명의 이기(스마트폰): 나를 포함해서 성경, 경건 서적보다 스마트폰 더 사용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무언가 허전하지 않는가?
코로나 19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세상은 거대한 탁류처럼 사람들을 몰고 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사상 문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악한 조류와 맞서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엡6:12).

존재의 울림으로 선포하라

세상적인 교회에서는 변영 복음이 지금도 유행한다.

그런데 변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1970년대의 변영: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

현시대의 변영: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것, 신앙의 힘을 통해 내 꿈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간증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피 묻은 복음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두 가지

1.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
2. 사명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고난과 신련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과 혼의 힘

우리의 인생 목표: 하나님의 영광, 덕을 찬양하는 것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찬양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덕을 널리 알리는 삶,

우리의 기쁨: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 지난 5년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못함

다만 나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신자의 삶의 행복은 존재의 울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온다.

주일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라

총정리

요즘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벤전2:9.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 왕가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 사역 제사장, 거룩한 민족(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 특별 소유 백성(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막 살지 않는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선발되었으면 경기장에 나가서 실제로 뛰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지적 영적 도덕적 어두움,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걷는 사람이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덕들에 대한 찬양을 널리 공포해야 한다.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

알렉산더는 위대한 왕,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사상가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고 회의를 열자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인사함.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도 올 것으로 예상함

그런데 그는 오지 않음. 그래서 직접 그를 찾아감

디오게네스는 남루한 행색으로 통 안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다.

왕의 행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음. 일광욕을 즐기지만 함

알렉산더: 네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 주겠다.

디오게네스: 네 소원이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게 비켜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에 큰 충격, 그럼에도 그에게 탄복함

그를 비웃는 무리들에게 그는 떠나면서 “정말이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소”
은 세상을 제패할 욕망에 사로잡힌 알렉산더는 따뜻한 태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는 디오게네스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선하심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그것만을 널리 알리고 싶은가?

참된 신앙은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누리는데 것과 신앙을 연결시키지 말라.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